



들키지만 앎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범법 행위 혹은 사회 관습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드러나고 입증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고 들키지만 앎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혹은 생각을 품었든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렘 17:9-10). 영어 New Living Translation 에서는 폐부(9절)를 ‘은밀한 동기’라고 해석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속 깊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NLT는 잠언 20:27절 말씀을 “여호와와 빛은 사람의 영혼을 꿰뚫고 그 모든 숨은 동기를 드러내신다” (The Lord’s light penetrates the human spirit, exposing every hidden motive.)고 번역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히 4:13).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4/9	4/10	4/11	4/12	4/13	4/14	4/15
삼하 8-10	삼하 11-12	삼하 13-14	삼하 15-17	삼하 18-19	삼하 20-22	삼하 23-24

Liberia의 한 언어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문구가 ‘죄를 지었을 때 들키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로 잘못 번역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어가 부족한 선교사들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고, 현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문맥상 뜻이 통하는 대로 번역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발견되어 제대로 수정 되었습니다.

이런 오역에는 실제로 그 문화에서 ‘들키지만 앎으면 죄가 되지 않는’ 관행이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솔직하게(?) 인간들의 속 모습을 드러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기도문은 제대로 이해하고 외우면서, 여전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속으로는 부끄럽고 난처한 순간만 모면하려고 자꾸 감추려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God’s Word in Man’s Language, by Eugene A. Nida, 17쪽에서 인용)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몇 번이고 섬기라고 주신 권력을 남용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던 사람이, 지금은 충실한 부하 장수 우리야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자신과 요압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죄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요일 1:9-10).

버젓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인식, 오래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권력/지혜 등으로 얼마든지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미련한 마음, ...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백을 막고 방해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비취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자백합니다. 동일한 복이 아직도 성경없는 부족들에게 하루 빨리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장 깊은 속의 생각과 욕망까지 드러내시는 주님의 양날의 검인 말씀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목적과 동기에서도 깨끗하도록 지켜주세요.



Innocent until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The life and attitudes of a believer and a non-believer are different in so many ways. Most non-believers, for example, do not consider themselves to be sinners. To be considered a 'sinner' in the secular sense, often one must be a law-breaking criminal, or commit some sort of socially-unacceptable, moral crime. Therefore, people who are not caught for their evil deeds are definitely not seen as 'sinners'.

And this applies to sinful intentions and thoughts as well. Unless these ideas are translated into actions, neither are they thought of as being sin. But we know that God looks at the inmost depths of our heart. In the New Living Translation, it says that God searches the heart and examines our secret motives (Jer 17:9). Proverbs 20:27 of the NLT says 'The Lord's light penetrates the human spirit, exposing every hidden motive'. There is nothing that we can hide from God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Apr 9	Apr 10	Apr 11	Apr 12	Apr 13	Apr 14	Apr 15
2Sa 8-10	2Sa 11-12	2Sa 13-14	2Sa 15-17	2Sa 18-19	2Sa 20-22	2Sa 23-24

One time, the word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from the Lord's Prayer were wrongfully translated to 'let us not be caught in our sins' in a Liberian language. The translators there were not fluent enough in the language to communicate well its meaning, so the local volunteers translated the text according to what they believed it meant, based on the context. Thankfully, by the grace of God, the misinterpretation was later discovered and rewritten correctly.

Revealed in this mistranslation was the culture's practice and belief that 'if one is not caught, one is not guilty of sin'. But this is not only this one culture's belief, but a view that we as Christians sometimes subtly accept. Even as we recite the Lord's Prayer, many times we do not confess our sins and repent. Instead, we try to hide them below the surface, lying to ourselves and to others. (from p. 17, *God's Word in Man's Language*, by Eugene A. Nida)

King David refused to repent and tried to cover his sins, abusing his authority to murder his own faithful

servant Uriah. He thought that if he and Joab remained silent, no one would know and his crime would go unnoticed.

Thankfully, the Bible tells us that if we confess our sins and repent, God will always forgive us. It is rather a sin to claim that we are without sin, because then we make God to be a liar (1 John 1:9-10). Arrogance in our good works or our 'righteousness', wealth, power, and wisdom are often what keep us from repenting and being honest before God.

Let us give thanks to Him who pierces the darkest corners of our heart with the light of His Word, and let us confess our sins to Him who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Let us pray that the same blessing of forgiveness would quickly come upon the Bibleless as well.

What do you see? What do we appreciate and are really happy for? Let us pray for their vision to seek what is truly valuable and for our pure motivation to serve God and His Kingdom.



Week 15 Prayer: Dear Lord, we again confess and acknowledge our total depravity and corruption. Please help us hold ourselves clean in our motivation and purposes within, let alone our outward behaviors, which is only possible through Your Word, the double-edged sword revealing our inner most thoughts and desires.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Weekly Prayers for
Bible Translation